

2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은행주 반란..다우 1.34%↑ [다우: 8063.07 (-1.34%)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 부진한 경기지표로 개장초 약세를 보였지만 다음주 초 발표되는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은행들이 반등세를 보이며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 은행들의 부실자산 처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가평가`가 유예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침.
은행구제안 기대감으로 은행株 장중 급반등	내주 발표될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감과 부실자산 매각 시 은행들의 손실반영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평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영향을 주어 은행주들이 장중 상승세로 돌아섬.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도 정부가 부실자산을 매입할 경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데이비드 트론 팩스피트(Fox-Fitt)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호재로 작용하여 강세를 보임.
뱅크오브아메리카, 도드 의원 한마디에 급락세 끊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장중 급락세를 보였지만 민주당 소속인 도드 위원장은 "지금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국유화 때가 아니다"고 밝혀 반등세로 전환. BoA는 주주들이 CEO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유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주가가 1984년 이래 24년래 최저치로 곤두박질쳤으나 이날 도드 의원의 발언으로 일단 급락세를 끊음.
경기지표 부진..주간 신규 실업수당 26년래 최대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1월31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전주대비 3만5,000건이나 증가한 62만6,000건(계절조정)에 달함. 이같은 규모는 1982년 10월 마지막주 이후 26년래 최대 규모. 또한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공장주문은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면서 전월대비 3.9% 감소.
유가 소폭 상승..`뉴욕 증시 반등` [WTI: \$41.17 (+\$0.85)	이날 유가는 장초반 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39.4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상승.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재무부가 오는 9일 금융구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과 낙폭 확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에 힘입어 2%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안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경기부양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로 이어지면서 유가를 지지.
유럽증시 혼조 마감	5일(현지시간) 유럽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 독일과 영국은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소폭 하락함. 특히 스위스재보험(Swiss Reinsurance)이 기록적인 손실 발표와 함께 배당 중단을 선언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여 28%나 폭락.

제목	주요 내용
ECB, 기준금리 2.0%로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과 체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금리를 2.25%포인트 인하한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인 현재의 2%로 유지하기로 함.
中 1월 차 판매량, 사상 첫 미국 추월	중국의 월간 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량을 추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제너럴모터스(GM)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소비자들이 지난달 79만대의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오토데이타의 수치에 따른 미국 내 전체 차량 판매량은 65만7,000대에 못 미침.
롯데-아사히, OB맥주 공동인수 추진	롯데그룹과 일본의 아사히 맥주가 OB맥주를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인수가격은 1,000억~1,500억엔으로 알려짐. 세계 최대 맥주업체인 벨기에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는 한국 자회사인 OB맥주를 이달 중 최대 25억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MF 하루만에 2조 유입...110조 돌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체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대비 100억원 줄어든 139조2,153억원을 기록.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08억원 감소한 84조8,296억원을 기록 사흘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음.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8억원 늘어난 54조3,857억원을 기록.
'외국인 7일간 1조 5,200억 순매수	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식 2,400억여 원을 순매수하며 7거래일째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음. 2007년 4월 이후 외국인 매수가 6거래일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외국인 매수세의 특징은 철저한 종목별 접근. 지난 7거래일간 외국인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업종 대표주들을 집중 매수했음.
코스피 `1,200선 도전` 고배..차익매물에 발목	5일 코스피시장이 사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한때 한달만에 1,200선을 회복하며 기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에 막혀 일중 저점까지 밀리며 1,170선에서 거래를 마침.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4.55% 급락하는 등 금융주의 낙폭이 깊었음. 건설주도 3.71% 급락.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